

사회문제 측면에서 본 노인문제의 해결방안에 관한 연구

정수일, 김보기

반딧불노인요양원, 대한신학대학원대학교

A Study on the Solutions of the Elderly Problems in Terms of Social Issue

Su-Il Jeong, Bo-Ki Kim

Director, Vandibool Senior Care Center

Professor, Daehan Theological University

요약 본 연구는 노인문제에 대하여 이를 노인 개인이나 가족의 문제로 국한하지 않고 사회 전체의 문제로 파악하는 최근의 연구에 부응하여 노인문제를 사회문제의 측면에서 해결방안을 찾고자 하는 연구이다.

본 연구방법은 이론과 현장에 나타난 논쟁점을 중심으로 노인문제의 실태를 분석하였다. 먼저 노인문제에 관한 이론적 논거로 구조기능주의(structural functionalism), 갈등주의 이론(conflict theory), 상징적 상호작용주의(symbolic interaction theory) 등의 시각에서 노인문제를 파악하고자 하였다. 노인문제의 논쟁점으로는 노인 가구의 증가, 노인의 이혼 증가 및 재혼 감소, 노동시장에서의 배제, 그리고 정치적 참여와 자원봉사의 딜레마 등을 선정하여 이에 대한 현황과 그 문제점을 연구하였다. 연구 결과, 사회문제의 측면에서 노인문제를 해결방안으로 첫째, 노인에 대한 인식 전환이 필요하다. 둘째, 노인에 대한 부정적 인식 제거해야 한다. 셋째, 국가와 민간의 상호보완관계 정립해야 한다. 결론적으로 사회문제의 측면에서 노인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노인문제를 대상 노인 개인이나 가족의 문제로 국한시킬 것이 아니라 이를 사회문제로 공론화하여 사회 전체가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할 것이다.

주제어 : 사회문제, 구조기능주의, 갈등주의, 상징적 상호작용주의, 배제

Abstract This study analyzed how the situation of the elderly problems around the issue appeared on theory and field. First was to identify elderly issues with a theoretical argument about the elderly problem, from the perspective of structural functionalism, conflict theory, symbolic interaction theory. The issues of older issues was selected to increase, divorce increases and remarried decline in the elderly, exclusion from the labor market, and dilemmas, such as political participation and volunteering in the elderly households study the current situation and their problems for them. the results in terms of social issues the first solution to the problem, the elderly, it is necessary to switch recognition for the elderly. Second, we need to remove negative perceptions about older people. Third, we must establish a complementary relationship between the state and the private sector. In conclusion, it should be full in order to solve the elderly problem in terms of social issues, not limited to the elderly problem in the elderly subject matter of an individual or family corresponds to publicize it as a social problem social preemptively.

Key Words : Social problems, structural functionalism, conflict careful, symbolic interactionism, exclusion

Received 29 May 2016, Revised 6 June 2016

Accepted 10 June 2016

Corresponding Author: Bo-Ki Kim

(Daehan Theological University)

Email: skk33333@naver.com

ISSN: 2466-1139

© Industrial Promotion Institute. All rights reserved. This is an open-access article distributed under the terms of the Creative Commons Attribution Non-Commercial License (<http://creativecommons.org/licenses/by-nc/3.0/>), which permits unrestricted non-commercial use, distribution, and reproduction in any medium, provided the original work is properly cited.

1. 서론

노인문제란 노인층에 관련된 일련의 사회문제를 말한다고 볼 수 있다. 과거 노인문제는 노인의 신체나 빈곤 등 단순한 문제에 불과했으나 현대사회에서 노인문제는 사회문제로 발전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오늘날 인구의 고령화는 인류 최초의 경험으로서 이제는 사회가 노인의 가치에 대한 깊은 성찰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시점에 와 있다. 하지만 현대사회는 노동력이 저하되는 노인들에 대해 부정적인 인식과 그들에게 불리한 제도를 가지고 있다. 현대사회로 오면서 핵가족화를 비롯한 가족기능의 변화는 노인을 가정 내에서 모시는 것을 더 이상 어렵게 만들었고, 노인에 대한 정부의 획기적 대책도 마련되지 않는 시점에서 노인문제는 심각하게 방치되어 왔다고 할 수 있다(김영화 외, 2015: 217)[1]. 현재 한국에서도 선진 국가와 마찬가지로 고령화 사회(aging society)로 진입함에 따라 노인문제가 갈수록 심각해져 가고 있다. 따라서 노인문제에 대한 대처방안은 급박한 시점에 이르렀다고 볼 수 있다. 한국사회가 당면하고 있는 심각한 노인문제의 핵심을 해결할 필요성이 절실한 입장이다(권육상, 2009: 69)[2].

노인문제는 노령에게 수반되는 신체 및 경제적, 사회적 생활상의 곤란이라고 할 수 있다. 노년기에 접어들면서 노동가능시기에 충분한 노후에 대한 준비를 하지 못함으로써 은퇴 또는 퇴직 후 경제적으로 자립하지 못하고, 적절한 건강유지와 영양공급의 부족으로 건강이 악화되며, 다양한 여가활동이나 사회관계를 유지하지 않아 사회관계 단절이나 소외 등을 느끼는 등 의지할 곳이 없어 어려운 생활을 하게 되는 인구층이 많아진다. 이러한 곤란은 인간으로서의 사회생활의 기본적인 욕구가 충족되지 않은 상태를 의미한다(강용규 외, 2011: 19)[3].

노인문제는 노인들이 인간다운 삶을 유지하는 데에 필요한 재화나 서비스에 대한 욕구 및 이와 관련된 권리를 자기 자신이나 가족의 노력만으로는 충족시키지 못하여 불만족스러운 상태가 지속되는 현상을 일컫는 것으로, 신체적인 문제로부터 심리·사회적인 문제, 경제적인 문제 등에 이르기까지 매우 복합적인 문제들을 포괄한다(김지미 외, 2016: 250)[4]. 또한 노인문제는 대다수의 노인에게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어려운 문제로, 노인 자신이나 가족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말한다. 따라

서 노인문제는 개인이나 가족의 문제만이 아닌 사회적인 문제이다. 다시 말해서 노인문제는 노인 개인이나 그 가족의 결함 또는 문제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사회구조의 전반적인 변화에 적절하게 대처하지 못함으로써 나타나는 사회제도와 사회구조에 대한 부적응에서 비롯되는 사회문제라고 할 수 있다.

노인문제를 사회문제로 보아야 할 이유들을 다음 몇 가지 차원으로 말할 수 있다(김근홍 외, 2013: 255-262)[5]. 첫째, 인구통계학적 차원이다. 즉 과거 높은 사망률에서도 인류사회가 현재까지 존속할 수 있었던 원인에 대하여 인구통계학적 측면을 살펴보면, 높은 사망률(mortality rate)은 그에 비해 높은 출생률(birth rate)로 대체되어 나타났기 때문이다. 여기에는 평균수명의 노인 문제와 노인 부양비용 변화에 따른 구조적 인구문제가 있다. 둘째, 역할상실에 따른 심리·사회적 문제이다. 즉 핵가족화에 의한 역할상실이 사회문제로서 노인문제의 전체 이유로 될 수는 없다. 왜냐하면 현대화 과정에서 전통적인 생산방식에서는 가급적 대단위 가족으로 구성되는 것이 유리했다. 그러나 현대화에 따른 전 분야, 즉 사회·기술·과학 등에 걸쳐 찾아온 변화는 앞선 세대의 기술과 지식 등이 다음 세대에서는 활용되지 못하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같은 세대 사이에서도 오늘에는 더 이상 통용되지 못하는 상황으로까지 도달하게 되었다. 따라서 노인들은 사회적 역할을 상실하기에 이르렀다. 셋째, 건강 악화에 따른 노인문제이다. 노인의 건강 악화는 연령이 높아질수록 노후생활에 치명적인 어려움을 초래할 수 있다. 특히 고령 노인의 건강 악화는 노인이나 가족들에게 커다란 부담감을 줄 수 있으므로 삶의 질에 있어서도 필연적으로 문제가 된다.

2. 노인문제의 이해

1) 노인문제의 개념

사회적 의미에서 노인문제가 특수한 문제가 아니라 사회 전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문제로 등장하여 정책과 학문 분야에 자리를 잡게 된 것은 현대화, 도시화, 산업화와 궤를 같이 하는 비교적 최근의 일이다(김근홍 외, 2013: 254)[5].

노병일(2013: 100)[6]에 따르면, “전 세계의 선진국에

서는 여러 가지 노인문제가 등장하고 있다. 앞으로 인간의 수명이 길어짐에 따라, 노인의 어려움을 겪는 기간은 길어질 전망이다"고 주장한다. 이러한 노인문제의 증가 배경에는 산업화로 인한 가족형태 변화, 공공교육기회의 확대와 지식의 대량생산과 보급, 인터넷의 발전, 가부장제의 쇠퇴 등의 다양한 요인들이 작용하고 있다. 문제는 한국사회에서 이러한 변화들이 모두 점진적으로 온 것이 아니라, 매우 급속히 왔기 때문에, 노인이 직면하는 다양한 문제들에 대해 대비할 여유가 없었고, 그 결과 일부의 노인들은 매우 심각한 상황에 직면하는 경우도 많이 나타난다.

박철현(2016: 349)[7]에 따르면, 노인문제는 기본적으로 노인의 사회적 지위하락에서 출발한다. 다시 말해서 노인의 지위가 하락하지 않았더라면, 아마도 노인문제는 현대사회의 중요한 사회문제로는 등장하지 않았을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를 감안하여 노인문제를 정의하면, 노인문제란 “노인의 사회적 지위하락으로 인하여 사회생활에서 불편을 겪고 사회적 비용을 발생시키는 것으로, 사회의 영향력 있는 사람들이 사회문제로서 정의하는 상태”이다. 따라서 이 정의에 따르면, 노인의 빈곤, 노인학대, 노인의 소외와 자살 등의 다양한 노인문제를 모두 포괄할 수 있다.

표갑수(2014: 127)[21]에 따르면, 노인문제란 노인의 기본적 생존과 발전의 욕구 및 문제를 노인 자신이나 가족의 노력에 의해 해결하지 못하는 상태를 말하는 데, 경제적 어려움, 건강보호의 어려움, 고독·소외·갈등을 느끼는 현상, 역할상실과 여가선용의 어려움 등을 포함하는 현상을 말한다. 즉 노인문제란 추상적 개념에 해당되는 데, 학자와 시대 및 장소에 따라 다르게 정의되고 있으며, 청소년 비행 및 성 차별 문제 같이 특정현상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복합적 양상을 보이기 때문에 한 마디로 정의하기 어렵다. 하지만 다수의 노인들에게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문제로 노인 자신이나 가족의 노력만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라고 볼 수 있다.

노병일(2013: 100)[6]에 의하면 사회문제화 된 노인문제로 노인빈곤, 노인정신건강, 노인학대 등을 들고 있다. 즉 첫째, 노인빈곤과 관련된 논의이다. 노인빈곤의 주요 요인으로는, 고용, 건강, 지출 등과 관련된다. 이러한 노인빈곤은 노인의 삶에 크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둘째, 노인의 정신건강과 관련된 논의이다. 노인은 여러 가

지의 상실을 경험하기 때문에 정신건강이 열악할 가능성이 있다. 특히 노년기에는 심리적·사회적으로 스트레스를 많이 경험하고 또한 뇌가 변화하기 때문에 노인은 정신건강 문제를 겪기 쉽다. 셋째, 노인학대와 관련된 논의이다. 노인학대는 노인에게 신체적·정서적·성적·경제적으로 어려움을 주는 행동이라고 볼 수 있다. 일반적으로 노인학대는 부모가 자녀와 함께 살거나 자녀에게 의지하는 경우에 가장 많이 발생한다.

표갑수(2014: 138-142)[21]는 노인문제를 다음과 같이 열거한다. 그에 따르면, 첫째, 소득 상실의 문제이다. 일반적으로 노인계층은 소득 상실로 빈곤한 생활을 하고 있다. 소득 상실의 원인을 살펴보면, 노동시장에서의 노동경쟁력 상실, 새로운 기술 습득의 곤란, 사회보장제도의 미비, 도시화와 핵가족화로 인한 경제적 불안정 등이다. 둘째, 건강문제이다. 노인의 건강상태는 연령이 증가할수록 악화되는데, 만성질환으로 인해 장기간의 치료 및 요양을 필요로 하기도 한다. 셋째, 역할상실과 여가활동의 문제이다. 역할상실은 노인 개인의 자아개념 및 사회적 정체감에 대한 혼란을 가져오고 노년기 사회 적응에의 곤란을 유발한다. 넷째, 소외·고독 문제이다. 이 문제는 역할상실과 밀접한 관계를 갖는다. 도시화로 인해 이웃과의 사회적 연대가 약화되므로 인하여 따라 노인은 가정과 지역에서 고립된다. 심리적으로는 고독감과 소외감으로 어려움을 겪는다.

2) 노인문제의 하위영역

노인문제의 하위영역은 다음과 같다.

김영화 외(2015: 199-220)[1]에 따르면, 사회문제로 불평등문제를 다루면서 빈곤, 노동, 성불평등, 연령 등을 하위요소로 하고 있다. 즉 연령에서 노인문제를 사회문제화하고 있다. 원석조(2015: 279-280)[8]에 의하면, ‘삶의 질을 위협하는 문제’의 하나로 인구문제를 다루고 있는데, 고령화의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박철현(2016: 347-382)[7]은 노인문제를 사회문제의 주요 주제로 논의하고 있다. 그는 사회문제를 크게 세 가지 항목으로 나눈다. 즉 개인적 행위와 사회문제, 불평등과 사회문제, 그리고 사회제도 및 삶의 질과 사회문제 등이다. 그 가운데에서 노인문제는 불평등과 사회문제 항목에 속하는 데, 여기에는 빈곤 및 실업문제·여성·소수집단(인종, 국적, 민족 등)·노인문제 등이 속해 있다. 권육상(2009: 62)[2]

은 “노후생활에 대한 적절한 대책이 없는 노인들의 증가는 오히려 커다란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실정이다”라고 말한다.

그러므로 대부분의 학자들은 노인문제에 대해 심각한 사회문제로 인식하고 사회문제의 영역에 노인문제를 포함시키고 있다.

노인문제의 영역에 관한 논의들은 다음과 같다.

〈표 2-1〉 노인문제의 영역에 관한 논의들

연구자	관련 항목
권육상 (2009)[2]	- 경제적인 빈곤문제 - 건강문제 - 노인부양문제 - 사회문제로서의 역할상실 - 심리사회적인 소외와 고독감의 문제 - 고령화에 따른 여성노인의 사회문제
노병일 (2013)[6]	- 노인빈곤 - 노인의 정신건강 - 노인학대
김근홍 외 (2013)[5]	- 소득보장 - 취업(고용)증진 - 건강보장 - 주거보장
표갑수 (2014)[21]	- 소득상실 문제 - 건강문제 - 역할상실과 여가활동 문제 - 소외·고독 문제
최일섭 외 (2014)[9]	- 직접 노인문제의 양상 - 역할 상실, 긴 여가시간, 수입감소, 건강보호, 사회적·심리적 고립과 소외문제 - 간접적 노인문제의 양상 - 노동력 인구 감소, 국가 재정 적자, 사회적 부담 증가
김영화 외 (2015)[1]	- 경제적 빈곤 문제 - 질병과 건강 악화 - 역할상실 및 고독 - 노인학대문제 - 노인과 성 - 노인자살
박철현 (2016)[7]	- 노인실업과 빈곤 - 노인의 소외와 자살 - 노인건강문제
양옥남 외 (2016)[10]	- 퇴직, 여가, 자원봉사, 노인교육 - 노인학대 - 가족부양과 노후 부부문제 - 죽음과 호스피스

한국사회는 다른 선진국들에 비해서 훨씬 빠르게 발전하고 있고, 그만큼 사회변화도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과거에 노인이 누렸던 지위는 급속히 하락하고 있고, 그 결과 다양한 형태의 노인문제들이 나타나고 있다. 과거에 노인이 ‘어르신’으로서 존경과 권위의 상징이었다면,

오늘날 한국사회에서 노인은 청·장년층에게 오히려 귀찮고 부담되는 존재로 바뀌고 있다. 그러므로 이러한 노인의 지위하락은 현대사회에서 노인들에게 그 대부분이 빈곤, 욕구불만, 학대, 그리고 외로움과 소외와 같은 여러 문제에 시달리게 하고 있다. 노인들이 겪는 다양한 사회 문제들은 사회적으로 엄청난 여파를 가져오며, 시급한 해결이 요구되는 사회문제라고 할 수 있다.

3) 노인문제) 노인문제에 대한 이론적 접근방법

노인문제에 관한 이론적 접근방법으로는 구조기능주의, 갈등주의, 상호작용주의 등이 있다. 이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구조기능주의 이론

구조기능주의((structural functionalism)에 따르면, 노인들의 역할이 어느 정도 유지되던 과거의 농경사회와는 다르게 현대 산업화 사회, 더 나아가 정보화 사회에 있어서는 노인들의 기능이 사회구조에 뚜렷하게 중요한 역할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노인문제가 초래된다.

이 이론은 세 가지 이론으로, 즉 분리이론과 근대화 이론 및 사회적 교환이론으로 나누어 논의할 수 있다.

첫째, 분리이론은 은퇴이론, 이탈이론, 유리이론 등으로도 불린다. 이 이론은 1960년대 노인문제를 설명하는 최초의 이론으로 나타났다. 박철현(2016: 350)[7]은 “노년기에는 다른 사람들과의 사회적 교류 및 활동의 범위가 축소되는 ‘분리’의 과정을 거친다”고 말한다. 즉 이 분리의 과정은 노인이나 사회를 위해서 바람직하고 불가피한 과정이며, 사회와 노인의 점진적인 상호분리과정은 양자 모두에게 기능적이다. 개인의 입장에서 볼 때, 노화에 따라 자신의 능력이 감퇴됨을 인식하고 조용히 죽음에 대비함으로써 됴므로 사회로부터 분리는 궁극적으로 노인에게 심리적 안정감을 준다. 반면에 사회의 입장에 보면, 사람은 언젠가 죽음에 이르기 마련이므로 늙어감에 따라서 활동범위를 축소시켜야만 노동력의 원활한 교체가 가능해질 수 있으며, 그 결과에 따라 사회체계는 부단한 세대교체 과정 속에서 유지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이 과정에서 노인문제는 발생한다. 즉 노년기에 사회적 네트워크의 범위가 줄어드는 자연스런 현상에 불만을 느끼거나, 줄어든 역할에 만족하지 않고 그 이전의 역할을 원할 때에는 어색한 교환이 일어나게 되기 때문에 노인문

제가 발생한다. 또한 네트워크나 역할의 축소는 전체 사회의 생존을 위해 자연스럽게 서로에게 도움이 되는 기능적 과정임에도 불구하고, 기능적으로 적응하지 않을 때 노인문제는 나타난다. 그러나 이러한 이론은 다음과 같은 단점이 나타난다. 정태석 외(2014: 94)는 “과슨스의 이론이 너무 추상적이며 갈등을 낳는 요인들을 적절하게 다루지 못한다”고 주장한다. 박철현(2016: 351)[7]은 “구조기능주의 이론에 대한 가장 큰 비판은 분리과정의 보편성과 불가피성에 대해 과대평가한 것이다”고 강조한다. 또한 윤경아 외(2014: 65)[11]는 “구조기능주의 이론은 사회에서 벗어나고 싶어 하는 경향이 노년기의 특성일 뿐만 아니라 개인적인 차원이라는 점을 증명하지 못한다”고 반론한다. 김근홍 외(2013: 254)[5]는 “제도와 구조를 통해 노인들에게 사회적 통합과 상호의존성의 축을 맡을 수 있는 새로운 역할을 마련해 주어야 한다”고 긍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지극히 논리 중심적이 이런 결론이 현실에서 쉽게 받아들여지긴 쉽지 않다”며 “바로 그 점이 이 이론의 장점이면서도 단점이다”고 말한다. 따라서 분리이론은 노인이 사회로부터 분리되는 과정에 대해 이론적으로 설명을 충실히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노인들이 분리되지 않고 오히려 오랫동안 사회에 잔존하고 싶어 한다는 점을 강조함으로써 그 한계점을 노출시키고 있다.

둘째, 근대화 이론(modernization theory)이란 사회발전과 노인의 지위문제에 관심을 기울인 이론이다. 박철현(2016: 351)[7]에 따르면, 노인의 지위는 근대화의 정도와 반비례한다. 즉 전통사회에서 노인의 지위는 매우 높았으나, 특정 사회의 산업화가 진행될수록 노인의 지위는 낮아지게 되었다. 즉 윤경아 외(2014: 66)[11]에 따르면, 근대화에 따라 보건의료기술과 생산기술이 발전하고, 도시화가 진전되며, 그리고 교육의 대중화가 이루어짐으로써 노인의 중요성이 상대적으로 떨어짐에 따라 노인의 지위가 낮아지게 되었다. 즉 전통사회에서 맡았던 자녀교육, 생활에 필요한 노후와 생산에 필요한 다양한 기술의 전수, 외부 세계와의 통신, 가족의 대표 등의 역할은 산업화된 근대 사회에서 다양한 전문가들이 맡게 되었다. 예를 들어 후손 교육을 맡는 노인의 역할은 학교 등의 교육제도에서 맡게 되고, 더 이상 노인의 지식만으로는 산업사회에서 중요한 지식이 인정될 수 없었다. 또한 다양한 생산에 필요한 지식교육은 전문화된 교육기관에

서 행해졌고, 더 필요할 경우에는 고용한 직장 내에서 이루어짐으로 노인의 지식이 생산현장에서 더 이상 중요한 의미로 존재하지 않게 되었다. 그리고 가족의 형태가 핵가족으로 변하면서 가족을 대표하는 노인이 아니라, 청장년층이 되었으며, 휴대폰, 이메일, SNS 등과 같은 통신기술의 발달은 외부로부터의 통신 영역에서도 오히려 노인들이 그들의 후손들에게 의존해야만 하는 상황이 되었다. 이 이론에 대한 비판으로, 박철현(2016: 352)[7]은 “노인의 빈곤, 소외, 학대 등의 노인문제는 노인이 급격하게 변하는 사회에서 필요로 하는 지식과 기술에 맞맞추어 나아가지 못하여 발생하는 것이라는 가정을 갖는다”고 주장한다. 그러므로 이 이론은 산업화를 경험하고 있는 대부분의 사회에서 노인들의 권위가 하락하고 있다는 점에서 노인문제의 해결을 위한 하나의 실마리를 제공해 준다. 그러나 근대화 이론은 덜 산업화된 사회도 현재의 서구사회가 경험하는 노인문제를 경험하게 될 것이라는 수렴의 명제가 문제로 작용한다.

셋째, 사회적 교환이론(social exchange theory)은 노인문제를 유용한 자원의 호혜적인 교환으로 설명하고 있다. 박철현(2016: 352)[7]은 “사회는 개인들 서로에게 이득이 되는 교환을 통해서 지탱되는 데, 노인문제가 발생하는 것은 전통사회에서 노인들이 제공했던 자원의 가치가 산업사회에서 저하하여 호혜적인 교환이 되지 않기 때문이다”고 주장한다. 다시 말해서 가치가 저하된 자원을 갖고 노인들이 기존의 교환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상대방의 의도에 순응하는 비용을 감수할 수밖에 없고, 따라서 낮은 지위 또한 감수하게 된다. 그러나 근대화 이론과는 달리 모든 노인이 동일한 정도의 문제를 겪지 않으며, 특히 사회경제적 지위가 높은 사람의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동일한 많은 자원을 소유하며, 따라서 문제를 덜 겪는다. 그러므로 이 이론은 노인문제를 개인의 적응과 그 결과로 나타난다고 주장한다. 이 이론은 근대화 이론의 수렴의 명제에서 탈피하여 개인이 그들의 생애과정에서의 선택과 적응에 따라서 상이한 수준의 문제를 경험할 수 있다는 의미라고 볼 수 있다.

결론적으로 구조기능주의의 각 이론들을 종합해 볼 때, 사회구조와 기능이 변화는 좀처럼 쉽게 변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오히려 작은 변화들이 누적되어 발생하거나 생산조건 변화가 가파르고 예측하기 어렵다는 이론인 구조기능주의 시각은 정보화 시대에 노인문제의 현실

적 해결 실마리를 찾아내기는 그리 쉬워 보이지 않는다. 구조기능주의에 대한 비판은 아래의 갈등주의 이론으로 이어진다.

(2) 갈등주의 이론

갈등주의 이론(conflict theory)에 대해서 이를 노인문제에 적용한 최익섭 외(2004: 150)[9]는 “노인들이 희소 권력 및 재화에 접근하거나 또는 소유할 기회를 상실할 때 문제가 발생한다. 재산을 통제하지 못하고 가족을 지배할 수 없게 되면서 통솔자로서의 지위를 상실하고 기존의 우월한 사회적 위상도 포기해야 하는 상황이다. 그런데 희소자원을 둘러싼 이런 세대 간의 갈등이 개인적 차원에서 비롯된 게 아니므로 노인문제는 역시 개인의 결함 또는 무능력보다 사회구조와 제도에서 비롯한다”라고 주장한다. 김근홍 외(2013: 254)[5]에 따르면, 문제라는 것 자체가 갈등을 내포하고 있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갈등이론으로 문제를 설명할 수 있다는 것은 논리적 귀결로 보인다. 사회에는 항상 어떤 제한된 양의 권력 및 재화를 둘러싼 갈등이 존재되어 있다는 것이 갈등주의 또는 갈등이론의 시각이다. 이에 따르면 사회변동의 원인 역시 이와 같은 권위를 둘러싼 갈등 안에 있기 때문에 사회의 평화는 제도를 통하여 질서유지가 강제되어야만 가능하다. 그런 점에서 갈등주의 사회문제는 개인차원으로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사회적 제도 차원으로 해결할 수밖에 없다.

갈등이론은 노인문제에 대해 구조기능주의와는 매우 상이한 시각을 갖는다. 첫째, 분리이론이 노인들이 그들의 일자리로부터 물러나는 것을 설명하는 것이라면, 갈등이론은 노인들이 그들의 일자리로부터 물러나는 것이 자발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강제적으로 이루어지며, 그것은 노인들이 사회의 지배적인 위치를 점유하는 중장년층의 희소자원을 차지하려는 경쟁에서 밀려났기 때문으로 파악한다(박철현, 2016: 353)[7]. 다시 말해서 갈등이론에 따르면, 사회는 연령에 따라 지배적인 연령집단과 피지배적인 위치의 연령집단이 존재하고, 이 집단들이 갈등하며, 그 갈등의 결과 소수집단인 노인집단의 가치는 희생된다는 이론이다. 둘째, 구조기능주의 이론은 노인문제를 개인이나 가족단위로 파악한다(박철현, 2016: 353)[7]. 다시 말해서 문제를 겪는 노인이나 그의 가족은 빠르게 변화하는 산업사회에서 요구하는 다양

한 역할변화와 적응을 잘하지 못한 사람이나 가족들이다. 그러나 갈등이론에 따르면, 노인문제가 더 많은 희소자원을 차지하려는 세대 간 전쟁에서 소수집단인 노인들의 이익이 희생되었기 때문에 발생한다. 따라서 갈등이론에서 노인문제는 가족이나 자녀에 의존해서 해결하거나 또는 국가가 시혜적 부조를 통해서 해결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노인집단의 당연한 정치적 요구를 통해서 해결되어야 하는 문제이다. 표갑수(2014: 130)[21]에 따르면, 산업사회가 될수록 노인들은 희소자원을 소유하거나 또는 희소자원에 접근할 가능성을 상실한다. 즉, 노인은 재산을 통제할 수도, 가족을 지배할 수도, 사회에서 주요 지위를 누릴 수도 없게 된다. 이리하여 희소자원을 소유할 수 없게 된 노인이 희소자원을 더 많이 소유한 집단에게 위협이나 괴롭힘을 당하는 문제가 발생할 때 노인문제가 사회문제가 된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사회는 희소자원을 더 많이 가진 중년층을 중심으로 하여 조직화되는데 반하여 노년층이 기존의 희소자원의 분배방식에 불만을 품고 분배방식의 변경을 요구하게 되므로 중년층이 이를 문제화로 인식할 때 비로소 노인문제가 발생된다는 것이다.

갈등주의에 대한 비판을 보면, 정태석 외(2014: 98)[12]는 “노인들의 정치적 결집과 자신들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정부에 대해 더 많은 요구를 하게 되면, 노인과 관련된 예산이 증가한다”고 주장한다. 따라서 수가 많은 노인들이 수가 적은 젊은이들에게 감당하기 힘든 정도의 노인 예산을 통해서 쓰게 되면, 세대 간의 불협화음이 필연적으로 발생한다. 결론적으로 갈등이론에 따르면, 노인문제의 원인발생은 노인이 사회 및 가족생활에서 희소자원을 소유하지 못하거나 많이 소유하지 못하는 데 있다. 그러므로 노인문제는 자본주의 사회에서의 구조적 모순과 결함에 의하여 발생된다.

(3) 상징적 상호작용 이론

노인문제의 원인과 관련하여, 표갑수(2014: 130)[21]는 “상호작용주의 시각에서 볼 때, 사회의 주요 집단이 노인을 늙고 병들고 가난하고 외롭고 의존적이며 쓸모없는 사람으로 볼 때 노인문제가 발생한다”고 주장한다. 그에 따르면, 노인은 전통사회에서는 지혜롭고, 권력과 권위를 갖춘 존경의 대상이 되었지만 현대 산업사회에서는 지혜로운 존재로부터 어리석은 존재로, 유용한 존재로부터

무용한 존재로, 주는 존재로부터 받는 존재로 부정적 의미로 변하고 있다. 노인을 이렇게 부정적으로 이해함으로써 노인 자신도 스스로를 가정과 사회로부터 고립되고 쓸모없는 존재로 낙인찍고 이로써 노인을 더욱더 무능하고 수동적이며 소극적인 존재로 만든다는 것이다. 상징적 상호작용주의(symbolic interaction theory) 시각에 의하면 노인문제의 원인은 노인에게 부정적 의미를 부여하여 낙인찍는 것으로부터 발생한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노인문제의 원인은 사회적 낙인에 의해 행동하는 노인 스스로에게도 있지만 우선적으로는 노인을 낙인찍는 사회제도 및 사회의 일반적 인식이 잘못되어 있다는 데에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김근홍 외(2013: 266-267)[5]에 따르면, 이 이론에서 노인문제가 나타날 수 있는 것은 노인에 향한 사회적 상징이 부정적인 방향으로 바뀌면서다. 다시 말해서 사회적 주류를 속하던 사람들의 상징이 부정적으로 바뀌면서 문제가 발생한다. 따라서 구조 기능 이론에서와 마찬가지로 (일정 정도 갈등이론도 포함하여) 기존 전통사회에서는 노인문제 자체가 있을 수 없었던 것이다. 그 당시 노련하며, 현명하고, 권위가 있었던 노인에 대한 상징적 의미가 이제는 굵뜨며, 어리석고, 짐으로만 여기는 존재로 상징적 의미가 변화되면서 비로소 문제가 되었다. 그렇다면 그것이 바로 사회적 낙인이다. 따라서 이러한 낙인이 결코 자연적으로 발생하는 것은 아니라 하더라도 노인 개인으로 본다면 억울함이 많은 것이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개인적 차원에서는 그 억울함에 대하여 풀길이 없다. 즉 상호작용과 상징적 의미가 변화되어야만 문제가 해결되기 때문이다.

김근홍 외(2013: 266-267)[5]는 “단어 자체의 의미처럼 이 이론에서 보는 사회는 각 개인들 사이에 이루어지는 상호작용에서 출발하는데, 그 상호작용이 이루어지기 위한 전제는 서로 의미가 통하는 의미체계를 공유해야 한다. 언어가 가장 대표적인 의미체계의 예일 터인데, 그밖에도 흔히 사회화라고 하는 교육과 관습 등도 그러한 의미체계 구축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기체들이다”고 주장한다. 따라서 이러한 상호작용이 통하고 지속될 때에 사회가 유지되며, 상호작용이 통하지 않을 때에 사회문제가 생긴다. 그러나 상호작용이 통하지 않는 경우가 현실에서는 너무나 많다. 상호작용주의이론에 대해 김근홍 외(2013: 267)[5]는 “이론에서는 현실에서 저 상호작용과 상징적 의미를 바꿀 가능성까지는 제대로 제시하지 못한

다”고 비판한다.

결론적으로 상호작용주의적 시각에서는 어떤 것이 사회문제로 고정된다고 보지 않는다. 사회문제는 특정한 집단이 어떤 사회적 현상에 대해 문제로 규정하고 이를 인식하여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할 때에 비로소 사회문제가 된다는 것이다.

노인문제의 대응방법은 다음과 같다.

〈표 2-2〉 노인문제의 대응방법

이론	원인	대책
구조기능주의 이론	-급속한 사회변화에 따른 역할변화에 대한 노인의 부적응이나 적응미숙 -사회성원들에 대한 부당한 적용을 위한 동기부여의 미흡	-부적응 노인에 대한 재교육과 공격 부조 -사회구성원들이 사회변화에 부단히 적응하도록 성원들을 사회화 또는 통제
갈등주의 이론	-지배집단의 이익실현을 위함 -소수집단으로서 노인의 이해관계가 희생됨.	-노인을 정치세력화하여 더 많은 이익을 얻어내고 이것을 제도화
상호작용이론	-노인에 대한 부정적인 고정관념과 낙인으로 인한 부정적 자아개념의 인정	-인을 차별하고 분리하는 관행을 지양 -노인에 대한 오명의 해소 -적극적 활동을 통해 긍정적인 자아개념의 유지

자료: 박철현(2016: 378)[7] 재구성.

3. 노인문제의 논쟁점

1) 노인 가구의 증가

노인 인구의 증가와 함께 노인 가구가 증가하고 있어 사회문제가 되고 있다. 2015년 노인 가구(가구주 연령이 65세 이상)는 385만 2천 가구로 전체 가구의 20.6%를 차지하였으며, 2035년에는 40.5%까지 증가할 전망이다. 2015년 현재 가구주가 65세 이상이면서 혼자 사는 가구는 전체 가구의 7.4%이나, 20년 후인 2035년에는 2배 이상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2010년 이후 노인 가구 중 1인 가구의 비중은 부부만 사는 경우보다 더 높게 나타났다.

〈표 3-1〉 노인 가구 추세

(단위 : 천가구, %)

	총가구	노인 가구	구성비 ²⁾	노인 가구 유형					
				부부 가구	부부+자 구성비	1인 가구 ³⁾	1인 구성비		
2000	14,507	1,734	11.9	573	3.9	184	1.3	544	3.7
2005	15,971	2,432	15.2	822	5.1	249	1.6	777	4.9
2010	17,359	3,087	17.8	1,038	6.0	297	1.7	1,056	6.1
2015	18,705	3,852	20.6	1,280	6.8	352	1.9	1,379	7.4
2020	19,878	4,772	24.0	1,569	7.9	437	2.2	1,745	8.8
2025	20,937	6,172	29.5	2,028	9.7	587	2.8	2,248	10.7
2030	21,717	7,690	35.4	2,533	11.7	719	3.3	2,820	13.0
2035	22,261	9,025	40.5	2,919	13.1	791	3.6	3,430	15.4

자료: 통계청(2015: 20)[13].

2) 노인의 이혼 증가 및 재혼 감소

노인 이혼, 소위 ‘황혼이혼’이 증가하고 있는데, 반해 재혼은 감소하고 있다. 2014년 65세 이상 고령자의 이혼은 증가, 재혼은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어서 독거노인의 증가가 우려되고 있는 현실이다.

2014년 우리나라의 총 이혼건수(11만6천 건) 중 남자 고령자는 5,914건으로 전체의 5.1%, 여자 고령자는 2,721건으로 2.4%를 차지하고 있다. 2014년 65세 이상 인구 성장률은 남녀 각각 4.5%, 3.7%에 반해 이혼은 전년대비 남녀 각각 8.2%, 17.4%로 황혼이혼은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다.

2014년 65세 이상 고령인구의 재혼건수는 남녀 모두 전년대비 1.9%, 3.8% 각각 감소하고 있다. 성별로 보면, 남녀 모두 전년대비 감소하였으나 남자의 이혼 후 재혼과 여자의 사별 후 재혼은 증가하여 서로 다른 경향을 보이고 있다.

〈표 3-2〉 노인 재혼 추세

	남 자					여 자						
	이혼		재혼			이혼		재혼				
	전체	65세 이상	전체	65세 이상	사별 후	이혼 후	전체	65세 이상	전체	65세 이상	사별 후	이혼 후
2000	119,455	1,321	43,370	971	607	364	119,455	423	48,132	202	109	93
2005	128,035	2,589	33,632	1,566	687	879	128,035	916	66,337	413	171	242
2010	116,838	4,346	33,043	2,039	624	1,475	116,838	1,734	57,451	702	186	516
2011	114,284	4,484	31,637	2,234	596	1,638	114,284	1,789	36,400	799	204	595
2012	114,316	4,836	31,114	2,449	559	1,890	114,316	1,955	36,488	912	187	725
2013	115,232	5,464	39,498	2,515	591	1,924	115,232	2,317	54,330	938	178	760
2014	115,510	5,914	47,516	2,467	498	1,968	115,510	2,721	53,927	902	182	720
전년 대비	0.2	8.2	-2.9	-1.9	-15.7	2.3	0.2	17.4	-0.7	-3.8	2.2	-5.3

3) 노동시장의 배제

노년기에 있어서 소득은 삶의 질을 보장하는 기본적인 조건이며, 노동시장으로의 진입은 이런 조건에 적합한 하나의 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 노년기는 신체적·지적 측면에서의 퇴화의 시기로 ‘상실의 시기’이다(박석돈 외, 2016: 129)[14]. 그러나 최근 평균수명의 연장으로 노년기가 연장됨에 따라 ‘은퇴’가 아니라 ‘재고용’이라는 사회적 인식과 더불어 계속 일하기를 원하는 노인세대가 증가하고 있다. 노년기 노동시장의 참여는 생계유지라는 목적 외에도 건강 유지나 여가선용 등을 통한 자아실현의 충

족과도 밀접히 연관되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동시장에서는 노년기의 생산성 약화라는 고정관념이 팽배해 있는 것 또한 사실이다. 따라서 노인 인력활용을 등한시하거나 이를 기피하는 풍조가 만연해 있다(박미란·최정원, 2015: 98)[20]. 이는 노년기 노동시장으로부터의 소외를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김안나 외(2008: 187-190)[15]의 연구에 따르면, 연령 집단을 기준으로 할 때, 75세 미만 노인 중 88.4%가 배제되고 있으며, 11.6%가 비배제인 것으로 나타난다. 75세 이상 노인 가운데 83.7%가 배제를, 16.3%가 비배제를 경험한 것으로 나타나, 전체적으로 볼 때, 노인 가운데 연령을 초월하여 노동시장에서의 배제를 경험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성별에 따른 분석을 해보면, 남성 중 83.7%가, 여성 중 88.0%가 노동시장에서의 배제를 경험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교육수준에서는, 초졸 이하 학력집단 중 89.2%, 중졸 이하 학력집단 가운데 81.6%, 고졸 이상 학력집단 중 76.9%가 노동시장에서 배제를 경험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그러므로 노인은 학력수준에 관계없이 노동시장에서 배제를 경험하는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특히 초졸 이하의 저학력집단에서 그 분포가 높게 나타나고 있다.

〈표 3-3〉 노동시장의 배제

분류	배제		비배제		계
	비율	명	비율	명	
연령 집단	75세 미만	88.4/1,065	11.6/140	100.0/1,205	
	75세 이상	83.7/ 613	16.3/119	100.0/ 732	
성별 집단	남	83.7/ 525	16.3/102	100.0/ 627	
	여	88.0/1,153	12.0/157	100.0/1,310	
교육 집단	초졸 이하	89.2/1,309	28.5/458	100.0/1,468	
	중졸 이하	81.6/ 156	18.4/ 33	100.0/ 179	
	고졸 이상	76.9/ 223	23.1/ 67	100.0/ 290	
계	86.6/1,678	13.4/259	100.0/1,937		

자료: 김안나 외(2008: 187-189)[15] 재구성.

2) 정치적 참여와 자원봉사의 딜레마

먼저 노인에 대한 정치적 참여여부를 살펴보면, 노인들의 정치활동에 어떠한 제약이 실제적으로 진행되고 있는가에 대한 논의가 중요하다. 노인들의 정당, 교회 및 종교, 여가, 자원봉사, 각종 선거 등의 활동에 있어서 참여도는 정치적 배제의 측정도구가 될 수 있다. 배지연 외(2006: 19)[19]에 따르면, 정치활동에 대한 노인의 참여도 지방선거가 전체의 88.2%로 가장 높았으며, 종교 및 교

회단체 등에 참여한다는 노인이 51.9%로 나타났다. 그러나 정당 활동 13.9%, 자원봉사 활동 15.2%, 반사회와 주민활동 17.2% 등으로 낮게 나타났다.

특히 정당활동의 참여율은 낮는데 반하여 투표율은 노인의 참여가 가능한 어느 분야보다도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 다른 세대와의 비교에 있어서도 높은 투표율을 보이고 있다. 따라서 정당활동에 대한 낮은 참여도는 정치로부터의 소외 요인이 될 수 있으며, 노인문제를 해결하는 데 걸림돌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2013: 347)[16]의 제18대 대통령 선거(2012.12.19 시행) 분석에 따르면, 연령대별 투표자수 비율을 보면, 60세 이상의 경우에는 22.6%, 40대 21.8%, 50대 20.8%, 30대 18.5%, 20대 14.6% 순이며, 20대와 30대의 경우에는 선거인수 비율에 비하여 투표자수 비율이 낮은 반면에 50대와 60세 이상의 경우에는 선거인수 비율에 비하여 투표자수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제18대 대통령 선거 투표율은 다음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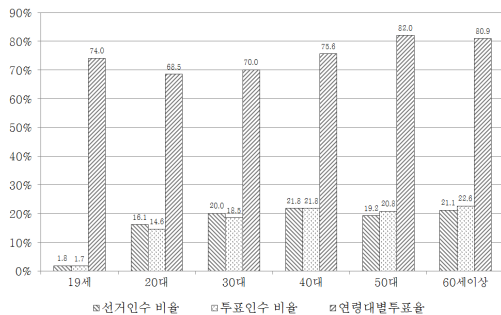
〈표 3-4〉 제18대 대통령 선거 투표율

(단위: %)

	19세	20대	30대	40대	50대	60세이상
선거인수 비율	1.8	16.1	20.0	21.8	19.2	21.1
투표인수 비율	1.7	14.6	18.5	21.8	20.8	22.6
연령대별 투표율	74.0	68.5	70.0	75.6	82.0	80.9

자료: 중앙선거관리위원회(2013)[16] 재구성.

제18대 대통령 선거 투표율 비교는 다음과 같다.



〈그림 1〉 제18대 대통령 선거 투표율 비교

자료: 중앙선거관리위원회(2013)[16] 재구성.

노인의 사회봉사활동을 살펴보면, 양옥남 외(2016: 293-294)[10]는 노인의 봉사활동 저해요인으로 권위주의적 특성, 가족주의적 성향, 수동적 성향 등을 말하고 있다. 그들에 따르면, 이에 대한 대안으로 첫째, 노인들 스스로가 그들의 참여 가능성을 인지하고, 이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하며, 둘째, 노인의 참여경로를 정비하고, 이에 대해 적극적으로 홍보하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하며, 셋째, 노인들이 보람을 느끼고 즐겁게 참여 가능한 프로그램을 개발해야 하고, 넷째, 자원봉사활동 참여에 필요한 경비 또는 이동수단을 제공하는 것도 참여활성화 방안의 하나라고 제시한다.

정경희 외(2012: 416)[17]가 조사한 2011년도 노인의 자원봉사활동 경험 실태를 살펴보면, 현재 자원봉사활동을 한다는 노인은 3.9%로 나타나 매우 낮은 수준이며, 과거에 자원봉사활동에 참여한 적은 있지만 현재는 활동을 하지 않는 노인이 9.2%이며, 나머지 86.9%는 자원봉사활동에 전혀 참가한 적이 없다고 응답하였다. 노인 남녀의 성별 차이 역시 미미한 차이를 보일 뿐이다. 이러한 동향은 최근 3년간 전혀 달라지지 않고 있다.

노인(65세 이상)의 자원봉사활동 참여경험은 다음과 같다.

〈표 3-5〉 노인(65세 이상)의 자원봉사활동 참여경험

(단위: %, 명)

연도	성별	한 적은 있으나 현재하고 있음		한 적은 있으나 현재는 하고 있지 않음		계(명)
		현재하고 있음	한 적은 있으나 현재는 하고 있지 않음	한 적은 있으나 현재는 하고 있지 않음	한 적은 있으나 현재는 하고 있지 않음	
2011	남	3.9	9.2	86.9	100.0	(10,544)
	여	5.2	10.3	85.1	100.0	(7,150)
2008	남	2.9	7.0	88.6	100.0	(3,394)
	여	10.2	10.2	89.8	100.0	(10,789)

자료: 정경희 외(2012: 416)[17] 재구성.

4. 노인문제의 해결방안

1) 노인에 대한 인식 전환

한국사회에서 노인은 존경의 대상이었으나, 산업화·도시화·핵가족화가 진전되면서 점차 노인에 대한 지위가 하락하여 노인을 사회적 생산능력이 떨어지고 의존성

이 높은, 즉 '젊은 세대의 짐'으로 여기는 부정적 시각이 늘어나고 있다. 이러한 시각 때문에 노인은 더욱 고독하고 소외감마저 느끼고 있다. 인간은 누구나 나이가 들면 노인이 될 수밖에 없고, 노인이 되어 간다는 것은 신체적·생리적·정신적으로 매우 불편하고 불안정한 상태에서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노인문제의 해결을 위해서는 노인에 대한 인식 전환이 요구된다. 이를 위해서는 아동에서부터 청소년, 성인에 이르기까지 노인에 대한 교육 및 프로그램이 필요하다. 이런 교육 및 프로그램을 통해 세대 간 분리를 막고 세대 간 통합을 통하여 노인들의 소외, 고독 등을 감소시킬 수 있으며, 더불어 세대 간 교류는 노인의 고용, 건강, 고독사, 자살 등과 관련된 문제를 해결하는 밑거름이 될 수 있다(지은구, 2016: 278-279)[18]. 또한 노인문제의 원인은 개인이나 가족의 결함보다는 사회의 변화 또는 사회의 구조나 제도의 결함에 있다는 것이 확실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가의 노인문제 해결노력은 아직도 노인 개인과 가족의 노력에 의존하는 데 치우쳐 있다. 노인문제를 보다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국가의 정책입안자나 정책결정자가 이러한 시각에서 속히 탈피해야 할 것이다(표갑수, 2014: 158-159)[21].

2) 노인에 대한 부정적 인식 제거

현대사회에서 노인의 지위는 크게 낮아지고 있다. 이런 현상은 여러 형태의 노인문제를 유발하는 근본적인 원인이 되고 있다. 그러므로 노인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노인을 존중하고 노인이 이바지한 점을 인정하는 사회 분위기를 형성할 필요가 있다(노병일, 2013: 113)[6]. 노인 중에는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건강한 노인이 많고 고학력과 경제적 여유를 가진 노인도 많다. 그러므로 노인은 모두 가난하고 병들고 역할이 없는 비생산적 인구라든가 의존적 복지수혜대상자라면 여기는 사회의 시각은 바뀌어야 할 것이다. 노년기는 가난과 질병, 소외와 고독의 시대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본인의 준비 노력에 따라 인생의 모험과 도전의 시기가 될 수 있다. 비록 신체적으로는 노쇠과정에 있지만 지적, 정서적, 인격적, 영적 성장과정에 있음을 인식하고 보다 적극적으로 창조적인 삶을 살아가는 생활태도를 정립해야 한다(표갑수, 2014: 159)[21].

3) 국가와 민간의 상호보완관계 정립

사회복지는 원론적으로 사회구성원의 복지를 사회구성원 전체가 연대책임을 진다는 원칙에 의거하고 있다. 현대사회에서의 연대책임은 구성원이 조세로 연대책임을 분담하는 방법을 취하고 있다. 따라서 현대사회에서의 사회복지의 1차적 주체는 개인과 가족이라기보다는 국가이다. 따라서 국가성원의 기본적이고 공통적인 욕구에 대하여는 국가가 주도적으로 먼저 대응하고 민간은 국가의 노력과 역할을 보완하고 보충하는 역할을 해야 하고 공통적이고 기본적인 욕구를 넘어서는 수준 높고 다양한 욕구에 대해서는 민간이 주도적 역할을 하고 국가가 이를 보완 또는 후원하는 노력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국가가 국민의 모든 욕구와 문제의 해결에 대하여 보완적 역할의 위치에 머물러 있으려는 태도로는 사회복지는 향상될 수 없을 것이다. 노인복지의 경우에는 소득문제와 의료비용지급과 치료문제 등은 국가가 주도적으로 제도적으로 보장해야 하고 일상생활상의 편의와 심리사회적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는 가족의 역할을 보완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이다(최일섭 외, 2004: 359)[9].

5. 결론

오늘날 한국에서도 선진 국가와 마찬가지로 고령화 사회(aging society)로 진입함에 따라 노인문제가 갈수록 심각해져 가고 있다. 따라서 노인문제에 대한 대처방안은 급박한 시점에 이르렀다고 볼 수 있다. 한국사회가 당면하고 있는 심각한 노인문제의 핵심을 해결할 필요성이 절실한 입장이다. 본 연구는 노인문제를 사회문제로 파악하고 사회문제의 차원에서 노인문제의 해결방안을 제시하였다.

사회문제의 측면에서 노인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첫째, 노인에 대한 인식 전환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아동에서부터 청소년, 성인에 이르기까지 노인에 대한 교육 및 프로그램이 필요하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물론 관련 기관 및 단체는 구성원에 대한 교육이 절실한 입장이다.

둘째, 노인에 대한 부정적 인식 제거해야 한다. 문제해결은 우선순위가 당사자에 대한 차별적 행위가 없어야 이에 대한 복지대책이 수립될 수 있다. 노인은 모두 가난

하고 병들고 역할이 없는 비생산적 인구라든가 의존적 복지수혜대상자로만 여기는 사회의 시각은 바뀌어야 할 것이다.

셋째, 국가와 민간의 상호보완관계 정립해야 한다. 국가성원의 기본적이고 공통적인 욕구에 대하여는 국가가 주도적으로 먼저 대응하고 민간은 국가의 노력과 역할을 보완하고 보충하는 역할을 해야 하고 공통적이고 기본적인 욕구를 넘어서 수준 높고 다양한 욕구에 대해서는 민간이 주도적 역할을 하고 국가가 이를 보완 또는 후원하는 노력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사회문제의 측면에서 노인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노인문제를 대상 노인 개인이나 가족의 문제로 국한시킬 것이 아니라 이를 사회문제로 공론화하여 사회 전체가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1] 김영화 외(2015). 「현장에서 본 사회문제」. 파주. 경기: 양서원.
 [2] 권육상(2009). 「최신 노인복지론」. 서울: 유봉출판사.
 [3] 강용규 외(2011). 「21세기 사회복지정책」. 서울: 청목출판사.
 [4] 김지미 외(2016). 「사회문제론」. 파주. 경기: 정민사.
 [5] 김근홍 외(2013). 「사회문제론」. 서울: 신정.
 [6] 노병일(2013). 「사회문제론」. 서울: 창지사.
 [7] 박철현(2016). 「사회문제론」. 서울: 박영사.
 [8] 원석조(2015). 「사회문제론」. 파주. 경기: 양서원.
 [9] 최일섭 외(2004). 「사회문제와 사회복지」. 서울: 나남.
 [10] 양옥남 외(2016). 「노인복지론」. 고양. 경기: 공동체.
 [11] 윤경아 외(2014). 「현대노인복지론」. 서울: 학지사.
 [12] 정태석 외(2014). 「사회학」. 서울: 한울아카데미.
 [13] 통계청(2015). 「2015 고령자 통계」
 [14] 박석돈 외(2016). 「노인복지론」. 파주. 경기: 양서원.
 [15] 김안나 외(2008). 「사회통합을 위한 사회적 배제계층 지원방안 연구: 사회적 배제의 역동성 및 다차원성 분석을 중심으로」. 서울: 한국보건사회연구원.
 [16] 중앙선거관리위원회(2013). 「제18대 대통령 선거참람(2012. 12. 19 시행)」.
 [17] 정경희 외(2012). 「2011년 노인실태조사」. 서울: 한국보건사회연구원.

[18] 지은구 외(2016). 「최신사회문제론」. 서울: 학지사.
 [19] 배지연 외(2006). 「사회적 배제와 우울에 관한 탐색적 연구」. 「노인복지연구」. 통권 33호: 7-27.
 [20] 박미란·최정원(2015). 「사회적 배제에 나타난 노년기 경제적 배제에 관한 연구」. 「한국복지실천학회」. 제7권 2호: 85-104.
 [21] 표갑수(2014). 「사회문제와 사회복지」. 서울: 나남.

정수일(Jeong, Su Il)



- 대한신학대학원대학교 사회복지학과 박사과정
- 현재: 현재 반딧불노인요양원장
- 관심분야: 사회복지, 기독교상담, 노인상담
- E-Mail: jsi@vscc.k

김보기(Kim, Bo Ki)



- 서울기독교대학교 사회복지학과 박사
- 현재: 대한신학대학원대학교 교수
- 관심분야: 기독교사회복지, 사회복지정책, 이데올로기
- E-Mail: skk33333@naver.com